

# 무장투쟁 나선 미얀마 시민군 경찰서 불태우고 군경 수십명 사살

### 곳곳서 정부군-시민군 교전 “체포·살해될 바에 순교할 것”

### 사제폭탄·엽총 등으로 극렬 저항

미얀마에서 쿠데타 발생 후 군경에 목숨을 잃은 시민이 818명에 이르는 가운데 시민방위군의 저항도 점점 대담해지고 있다. “스스로 지키자”며 사제 폭탄을 든 시민군은 이제 경찰서를 불태우고, 군경 수십 명을 사살하는 등 무장 저항 활동에 힘을 모으고 있다.

24일 이라와디와 미얀마나우에 따르면 미얀마 동부 카야주에서 전날 카렌족 시민군과 정부군 간에 무력 충돌이 벌어져 정부군 40명 이상이 사망했다. 전날 오전 정부군이 카렌족 민가에 무차별 포격을 가해 민간인 2명이 다치고 주택이 파손됐다. 이에 카렌족 시민군이 정부군과 교전을 벌이다 정오께 모 베(Moe Bye) 경찰서를 점령했다. 경찰서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정부군 최소 15명이 숨지고, 경찰서도 불에 탔다. 시민군은 현장에서

서 붙잡은 군경 4명의 사진을 공개했다.

카렌족 시민군 측은 “정부군이 민간인한테 저지르는 잔혹한 행동을 보고 무기를 들었다”며 “청년들은 시위하다 붙잡히고 살해될 바에 총기를 들고 순교를 택하겠다고 나섰다”고 말했다.

카야주 데모소(Demoso)의 고속도로에서도 같은 날 교전이 벌어져 정부군 24명 정도가 사망했다. 시민군과 주민들은 정부군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고속도로를 가로막으면서 장시간 교전이 이어졌다.

미얀마에서는 카야주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정부군과 시민군의 교전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군은 기관총과 자동소총, 수류탄, 유탄발사기까지 동원해 시민군 소탕작전을 벌이고 있으나, 시민군은 19세기 방식으로 집에서 만든 엽총, 사제폭탄 등 재래식 무기로 극렬히 저항하고 있다. 이에 군부는 미얀마 서부 친주 산악지역 민달(Mindat) 지역에 계엄령을 발령하고 시민군 소탕을 위해 병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정부군은 민달 시내 진입 당시 주민 최소 18명을 ‘인간 방패’로 내세운 데 이어 최근에는 앞에 세

운 군인들이 항복하는 시늉을 하고 뒤에 매복한 군인들이 총을 발사하는 전술까지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달 지역 시민군 대변인은 “정부군 병사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손을 들고 항복한 것처럼 시민군을 향해 걸어왔다”며 “우리는 그들을 쏠 수 있었지만, 살인자가 아니기에 그러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 뒤에 숨어있던 병사들이 총을 쏘 시민군들이 다쳤다”고 말했다.

민달 지역 다른 마을에서는 지난 21일 정부 병사들이 민간인 복장을 하고 탈출한 주민인 적 시민군에게 다가온 뒤 총을 난사해 시민군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정부군도 최소 5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군이 민달 지역 시민군 소탕을 위해 총공세를 펼치자 약 1만 명의 주민들이 집을 떠나 인근 정글에 숨어 들고 있다.

집을 떠난 민달 주민들은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곧 장마가 시작되는데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가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며 시민군에 희망을 걸고 방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항전 의지를 다졌다. /연합뉴스



이탈리아 케이블카 추락 13명 사망 2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북부 피에몬테주 스트레사 마타로네산의 케이블카 추락사고 현장에서 구조대가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사고로 최소 13명이 숨지고 2명의 어린이가 크게 다쳤다. 이 케이블카는 유명 관광지인 마조레 호수의 절경을 한눈에 볼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다. /연합뉴스

## 인도 누적 사망 30만명 넘어...세계 3번째

### 하루 사망은 연일 세계 최대

### 실제 수치는 몇 배 더 많을수도

인도에서 연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희생자가 쏟아지는 가운데 현지 누적 사망자 수가 30만명을 넘어섰다.

24일 인도 보건가족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전날부터 약 24시간 동안 각 주의 집계치 합산)는 30만3720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 발병 후 누적 사망자 수 30만명 이상을 기록한 나라는 미국(60만4087명, 이하 인도 외 통계는 월드오미터 기준), 브라질(44만9185명)에 이어 인도가 세계 3번째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이들의 수는 347만8240명인데 이 가운데 8.7%가 인도에서 나온 셈이다.

특히 최근 인도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

해 연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날 신규 사망자 수도 4454명으로 집계됐다. 미국과 브라질의 하루 사망자 수가 최근 각각 1000명 미만, 1000~2000명수준으로 줄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도의 상황이 가장 심각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망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실제 수치는 정부 집계보다 몇 배 더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망자가 쏟아지면서 화장장과 묘지도 포화상태다. 기존 대형 노천 화장장 인근 주차장·공원·공터 등 곳곳에 임시 화장장까지 설치돼 밤낮 쉬지 않고 시신을 처리하고 있으며 대도시권 묘지에는 빈자리가 없을 정도다.

인도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힌두교도는 화장을 선호하며, 이슬람을 믿는 14%는 대부분 시신을 매장한다. 외중에 화장용 땀감 가격 등 장례 비용이 치솟으면서 갠지스강에 시신이 수장 또는 유기되는 일도 벌어졌다. /연합뉴스

## 벨라루스, 외국 여객기 강제착륙 야권 인사 체포

### EU·회원국 “용납 못한다” 규탄

지난해 대선 부정으로 인한 정치 혼란이 완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옛 소련 국가 벨라루스에서 23일(현지시간) 해외에 머물던 야권 인사가 전격 체포됐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이 야권 인사를 체포하기 위해 그가 타고 이동 중이던 외국 항공사 소속 여객기를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 공항에 강제 착륙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벨라루스 전투기까지 동원됐다.

타스·AFP 통신 등에 따르면 벨라루스에서 인기가 높은 야권 성향의 텔레그램 채널 ‘넥스타’(NEXTA)의 전(前) 편집장인 라만 프라타세비

치(26)가 민스크 공항에서 보안당국에 체포됐다고 넥스타 측이 밝혔다.

프라타세비치는 이날 그리스 아테네-리투아니아 빌뉴스 노선을 운항하던 아일랜드 항공사 라이언에어 소속 여객기를 타고 여행하던 중 기내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로 여객기가 벨라루스 민스크 공항에 비상착륙한 뒤 현지 보안당국에 체포됐다. 넥스타 측은 “여객기 점검 결과 폭탄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모든 승객은 보안 검색을 받았다”면서 “프라타세비치는 체포됐다”고 전했다.

친정부 성향의 텔레그램 채널 ‘폴 페르보보’는 루카셴코 대통령이 직접 여객기 비상착륙을 지시했으며, 여객기 호송을 위해 미그(MiG)-29 전투기를 출격시키도록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노 마스크로 공원 햇살 즐기는 뉴욕 시민들 미국 뉴욕 맨해튼의 센트럴파크에서 23일(현지시간)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모여앉아 햇살을 즐기며 담소하고 있다. 뉴욕주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새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수용해 지난 17일부터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실내외에서 ‘노 마스크’를 허용했다. /연합뉴스

## 시진핑 방한, 7월 이후 한·중정상회담 가능성

### 방한 여건 마련...방역 성과가 관건

지난주 한국과 미국 정상회담이 이뤄짐에 따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한국 방문 시기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24일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해 여러 차례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시도했다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복병을 만나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말 한중 정상 간 통화에서 시 주석의 조기 방한을 위한 소통을 강조했고 한미 정상회담마저 마무리됨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올해 하반기에 서울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한 의지를 계속 보여왔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중국 주석이 아닌 새로 취임한 미국 대통령을 먼저 만남으로써 한미,

한중 정상 외교에 있어 외교적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한 소식통은 “미국 동맹국인 한국의 정상이 새로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보다 시 주석을 먼저 만나게 될 경우 적지 않은 부담이 됐을 것”이라면서 “한미 정상이 먼저 회동함에 따라 시 주석의 방한에 외교적 걸림돌은 사라진 셈”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적지 않은데 중국은 오는 7월 1일 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거행할 예정이라 시 주석의 방한을 한다던 올 하반기인 7월 중순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가 많다. /연합뉴스



**MG금남새마을금고**

## 금남새마을금고 사옥 신축 착공기념 경품 大 잔치

■응모기간: 2021년 4월 15일 ~ 9월 30일 ■추첨일자: 2021년 10월 20일

**정기예금(100억한도)**

12개월 **1.85%**  
18개월 **1.95%**

**정기적금**

1년 **3.0%**

**자신만만자유예탁금**

하루만 맡겨도  
최고 **1.5%**

**2020년 출자금**

**3.0% 배당**

1등 스타일러

2등 노트북

3등 음식물처리기

4등 로봇청소기

5등 공기청정기

**응모권 지급 조건**

- 출자금 신규 및 추가 10만원 입금
- 정기예금 신규
- 정기적금 신규
- 대출 신규 (범위내, 공제약관 제외)
- 공제 상품 가입 (생명, 화재)
- 체크카드 신규 발급 (영수증 제출)
- 자동이체 신규
- 가맹점 결제계좌 신규

\*상기 이미지는 실제상품과 다를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중복당첨 시 최상위 경품 1개에 한하여 지급함)

**MG금남새마을금고** 대인본점 223-8007 총장지점 223-7217